

## 자작문항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문화 전반에서는 자살을 불길하고 혐오스러운 주제로 여기며 논의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자살을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정 짓는다. 그러나 과거의 몇몇 전통 이론들은 “자살은 언제나 나쁘다.”라는 명제에 반박하며 자살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일부 사례를 제시하였다.

먼저, 삶의 질을 쾌락과 고통의 총합으로 판단하는 ㉠공리주의 관점은 일부 사례에서는 자살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호전 가능성이 전무한 말기 암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공리주의자는 개인의 통증이 즉시 사라지고, 가족과 의료진이 겪는 정서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며, 앞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누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런 경우 자살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예로, 단좌 전투기가 도심 상공에서 고장을 일으켰을 때 조종사가 직면하는 선택을 생각해보자. 그는 탈출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조종을 유지하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은 희생할 수도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해 다수의 생명을 구하는 일종의 후자와 같은 자기희생적 자살 역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효를 중시하는 ㉡유교의 관점에서 일부 사례에서 자살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어떤 경전에서는 자살을 장려하기도 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논어가 있다. 논어에서는 “뜻 있는 선비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인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도덕적 이상 즉 의가 생명보다 위라는 당시 선비들의 인식을 보여 주며 이와 동시에 자신의 생명보다 대의와 명분을 중요시 생각하는 의를 높이 평가하는 당대 유교문화 또한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또한 소학에서는 “여인은 정절을 지키다 죽는 것을 의로 삼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동양 문화가 여성의 생명보다 정절을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와 동시에 능욕을 피하기 위한 순절을 이롭고 장려할 만한 행위로 보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예기에서는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에는 ‘충성’으로 섬기고, 만일 그 충이 위협받는다면 의를 위해 몸을 버린다.”라는 구절을 통해 충 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정당화 논거가 의료 윤리와 인권 담론 속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고 있다. 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한 자살을 정당화한 공리주의 논거는 ‘적극적 안락사’와 ‘국가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정절을 지키거나 의 또는 충을 지키기 위한 자살을 강조한 유교의 관점은 젠더 윤리와 집단주의 문제로 이어지며, 과거의 미덕이 오늘날 그대로 통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한다. 그럼에도 이런 전통적 관점은 자살이라는 금기에 균열을 내고 자살에 대한 열린 시야를 가지고 이에 관한 여러 윤리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서로 대립하는 전통적 이론 간 비교를 통해 특정 사회 담론을 평가하고 있다.
- ③ 특정 사회 담론에 대한 전통적 이론들의 입장을 현대 이론에 근거해 부정하고 있다.
- ④ 특정 사회 담론에 대한 전통적 이론들의 입장을 밝히며 이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⑤ 특정 사회 담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의 쾌락만을 자살 정당화 근거로 삼는다.
- ② ㉠과 달리 ㉡은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한다.
- ③ ㉠과 달리 ㉡은 후에 집단을 위한 개인의 자살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 ④ ㉠과 ㉡은 모두 개인을 향한 집단적 이기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⑤ ㉠은 ㉡과 달리 현대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생명권과 자유권을 위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삶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 ② 유교의 관점은 후에 성차별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를 다시 되짚어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③ 유교의 관점은 후에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경시한다는 차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 ④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⑤ “자살은 언제나 나쁘다.”라고 여기는 현 사회의 인식은 공리주의와 유교의 관점에 대한 탐구를 통해 변화할 수 없을 것이다.

7.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347년, 백년전쟁 중 영국군이 프랑스의 항구 도시 칼레를 완전히 포위하고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6명의 시민대표를 희생시키라고 주문하였다. 그러자 시장 에스타슈 드 생피에르를 비롯한 여섯 명의 시민대표는 직접 영국군에게 나섰다. 그들은 에드워드 3세 앞에서 도시 열쇠를 바치고 “우리가 죽음으로 도시를 구하겠다.”라고 자진했으며, 쇠사슬에 묶인 채 처형대에 올라섰다. 그러나 처형 직전 왕비 필리파의 간청으로 목숨이 구해졌고, 협상 끝에 칼레 시민 전체가 석방되었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용기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 ① 유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섯 명의 시민의 행동은 “도시를 지킨다.”라는 대의를 위한 바람직한 행동이라 평가하고 이를 타인에게 장려하겠군.
- ②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진하여 희생한 6명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행동이지만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겠군.
- ③ 유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섯 명의 시민의 행동이 자신의 이익에 기반한 행동이라면 그들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겠군.
- ④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진하여 희생한 행동이 이익과 권력을 위함이라면 여섯 명의 시민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겠군.
- ⑤ 유교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은 모두 여섯 명의 시민의 행동을 타인에게 모범을 보이는 장려할 만한 행동이라 생각하겠군.